

# 조선 후기 장시 발달과 사회·문화 생활 변화

김대길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전공

kimdk@mest.go.kr

- I. 머리말
- II. 5일 정기시장의 정착과 생활주기의 변화
- III. 상품 생산·유통의 활성화와 여성의 상업 활동 확대
- IV. 장길의 발달과 주막 설립·이용의 증가
- V. 생활정보 수집과 지역 간 문화교류의 장
- VI. 맺음말

## I. 머리말

조선시대 장시는 농촌의 생활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장시는 상품유통의 중심지로서 물화의 집산지 또는 최종 소비지로 자리 잡으면서 다양한 사회적 기능도 담당하게 되었다. 장시가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생활 패턴이 크게 변모하였다. 상인들은 물론이고 농민이나 수공업자들도 장날을 중심으로 생활주기가 짜여졌다. 장시를 이용하게 되면서 농업·수공업 생산물 등 상품의 판매와 매입은 물론이고 각종 생활정보교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장시는 조선시대 사회경제의 변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요소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장시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선 전기 장시의 성립기반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조선 후기 장시의 발달과 변화과정, 상품유통구조와 화폐경제의 발달에 대한 연구성과가 축적되었다.<sup>1)</sup> 그리고 여러 형태의 상인층 활동과 시장권, 도량형 등에 대한 연구와 각 지역별 장시의 특징과 성격을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sup>2)</sup> 또한 여러 지역의 생활일기에 나타난 장시와 경제생활의 관련성도 다양하게 분석되었다.<sup>3)</sup> 이와 함께 장시가 사회변동의 시대상을 담고 있는 저장고이자 민중들의 삶의 방식이 집결되어 있는 곳으로 파악하여 시장의

- 1) 한상권,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경상도 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1981);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1984);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상품유통 발달», 『한국사론』 13(1985); 이경식, 「16세기 장시의 성립과 그 기반», 『한국사연구』 57(1987); 김대길, 「18-19세기 지방장시에 대한 일고찰 -전라도 지방을 중심으로-, 『우인김용덕박사정년기념사학논총』(1988);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국학자료원, 1997); 이현창, 「조선 후기 충청도 지방의 장시망과 그 변동», 『경제사학』 18(1994).
- 2) 오성, 『조선 후기 상인연구』(일조각, 1989); 고동환, 『조선 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지식산업사, 1998); 김중혁,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고성호, 「조선 후기 地方 場市の 분포와 특징 -전주·남원을 중심으로-, 『대동사학』 3(2004); 최동원, 「18-19세기 西郊지역 商業發達과 場市の 動向」, 『조선시대사학보』 43(2007); 고동환, 「朝鮮後期-韓末 榮山江 水運과 市場」, 『도서문화』 38(2011).
- 3) 이성임, 「조선 중기 吳希文家의 商行爲와 그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8(1999); 이현창, 「農村財貨市場의 구조와 변동: 1841-1934」, 『맛질의 농민들』(일조각, 2001); 이현창, 「18세기 황윤석가의 경제생활」, 『이재난고로 보는 조선 지식인의 생활사』(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정수환, 「18세기 권상일의 시장접촉과 화폐경제생활」, 『사학연구』 104호(2011).

사회사적 의미와 상인의 생활상을 분석한 연구도 있다.<sup>4)</sup>

장시는 사람과 사람, 지역과 지역 간 상품과 문화를 연결해주던 민인들의 삶이 담겨 있는 곳이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공간과 상인,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가운데 형성되는 장터문화에는 민인들의 생활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장터는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핵심 공간이며, 장꾼들의 삶을 영위하는 생활의 터전이다. 조선 후기 사회·경제·문화 등 여러 관련 분야가 함께 어우러진 공간이다.

그동안 많은 연구가 장시의 구조와 외부적인 변화과정에 집중된 반면에 일상생활과 밀착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만 검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장시와 경제생활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장시가 민인들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적응해왔는지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장시 성립 후 5일장이 정착하게 되면서 농촌의 경제·사회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게 되는지, 상품의 생산과 매매 형태의 변화와 여성들의 상업 활동 증가 모습, 상인의 활동범위 확대에 따른 장길의 발달과 주막 설립의 증가요인, 장시 발달이 사회·문화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 II. 5일 정기시장의 정착과 생활주기의 변화

장시는 15세기 중엽 전라도 지방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구체적으로 나주(羅州)와 무안(務安)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다.<sup>5)</sup> 이러한 사실은 전라도관찰사 김지경(金之慶)의 보고에서 확인된다.<sup>6)</sup> 부정기적이던 시장 개설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정기성을 지니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자 관찰사의 보고가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주목되는 것은 이전에는 없던 형태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정해진 곳에서 교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4)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웅진출판, 1992);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밀알, 2001).

5) 『성종실록』 성종 3년 7월 입술; 『성종실록』 성종 4년 2월 임신.

6) 『성종실록』 성종 3년 7월 입술.

초기의 장시는 보름 간격, 한 달에 2회 열리는 형태의 정기성을 지니고 있었다. 장시는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충청도와 경상도 지역에도 개설되고 있었다.<sup>7)</sup> 중종 13년(1518) 기록에는 방방곡곡에 장이 서지 않는 곳이 없다고 하였고<sup>8)</sup>, 2년 후 기록에는 제도(諸道)에 장시가 개설되고 있다<sup>9)</sup>고 하였다.

이전에는 없던 형태의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자 이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진행되었다.<sup>10)</sup> 장시의 개설에 반대하는 주장은 많은 민인들이 상업 활동에 편입되면서 말리(未利)를 추구하는 유식자(遊食者)를 증가시키고 농토가 황폐화된다는 것이었다. 또한 물가가 오르고 도적 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sup>11)</sup> 여러 가지 폐단을 발생시키는 장시 개설을 억제하지는 주장은 무농(務農)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sup>12)</sup> 이외는 달리 장시 개설이 민인들의 유무교역(有無交易)과 흉황(凶荒) 때 진휼책의 하나로 장시를 개설하여 구황(救荒)에 활용하는 등 유익한 점이 있다며<sup>13)</sup> 옹호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숙종대 기록에서도 장시가 개설될 경우 출하되는 곡물을 매입하여 자연재해에 따른 구호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당시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은 평안도 청북 지역에 자연재해가 있어 크게 염려되는바 장시가 없어 백성들이 자활(資活)할 방도가 없고 관청에서도 곡식을 구입, 운반하여 구황(救活)하기 어렵다고 하여<sup>14)</sup> 장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시 개설에 대한 반대와 옹호의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16세기 명종대에 들어서면서 한 달에 3회 이상 개시하는 곳이 늘어났다. 이 시기 조정에서 장시 개설에 대해 논의한 내용을 보면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도적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각 지역의 장시 개시일을 획일적으로 통일시키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시 개설을 제한적이긴 하지만 용인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인접한 지역의 장시 사이에

7) 『중종실록』 중종 11년 11월 정미; 『명종실록』 명종 원년 2월 무신 참조.  
 8) 『중종실록』 중종 13년 정월 임자.  
 9) 『중종실록』 중종 15년 3월 기유.  
 10) 김대길, 앞의 책, 27-32쪽 참조.  
 11) 『중종실록』 중종 33년 9월 경자; 『명종실록』 명종 원년 2월 무신; 『고종실록』 고종 17년 1월 28일 참조.  
 12) 『중종실록』 중종 13년 정월 임자.  
 13) 『성종실록』 성종 18년 6월 무자.  
 14) 『승정원일기』 367책, 숙종 22년 9월 27일.

개시일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였다.<sup>15)</sup> 도적 발생의 폐단만 줄인다면 민인들이 생활의 근거지로 삼고 있는 장시의 유용성을 소극적이거나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각 지역의 장시는 점차 한 달에 6회 개시하는 5일장으로 발전해갔다. 임진왜란을 겪은 직후인 선조 40년(1607)의 다음과 같은 기록은 장시 수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농촌의 사회경제가 크게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헌부가 아뢰기를 “..... 列郡에 場市가 서는 것이 적어도 3-4곳 이상이어서 오늘은 이곳에 서고 내일은 이웃 고을에 서며, 또 그 다음날에는 다른 고을에 서서 한 달 30일 동안 장이 서지 않는 날이 없으므로 간사함이 성행하고 牟利가 날로 심해지니 매우 염려됩니다. 該曹로 하여금 事目을 마련해 啓下하여 行移해서 큰 고을은 두 곳, 작은 고을은 한 곳에 한 달에 세 번 모두 같은 날 開市하는 외에 일체 禁斷하여 민심을 진정시키소서. ....”<sup>16)</sup>

17세기 초에 장시가 개설되는 곳이 크게 늘어나 상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많아지고, 이에 따른 폐단도 적지 않으므로 고을의 규모에 따라 개설하는 장시 수를 제한하고 개시 횟수도 한 달에 3회로 한정하는 한편 같은 날 개시하는 것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앞서 명종 대에 논의되었던 것과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기서 3회로 제한하고자 한 것으로 보아 5일장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다.

인조 8년(1630) 특진관(特進官) 김자점(金自點)은 한 고을의 장시가 대부분 한 달에 6회 개시하고 있으며, 인근 고을과 연결해보면 장날이 아닌 날이 없기 때문에 농우를 도살하여 판매하는 자들이 매우 많다고 하였다. 그리고 장시가 도적들의 근거지가 되는가 하면 농사에 방해가 된다는 폐단을 지적하며 장시가 많이 개설되는 고을은 장시 수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sup>17)</sup> 숙종 29년(1703) 조정에서는 전국적으로 장시 개설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도적 발생도 많아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였다. 논의의 핵심은 도적 발생의 폐단을 줄이기

15) 『명종실록』 명종 원년 2월 경술.

16) 『선조실록』 선조 40년 6월 을묘.

17) 『승정원일기』 29책, 인조 8년 1월 18일.

위해 이들의 근거지가 되는 장시를 폐지하자는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장시를 크게 관문장시(官門場市), 연구지장시(年久之場市), 신설장시(新設場市)로 구분하였는데 이들 장시 중 기존의 장시 외에 궁벽한 산골짜기에까지 새로 열리는 곳을 억제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sup>18)</sup> 장시가 수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의 장시는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 한 달에 6회 열리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갔다. 18세기 말 자료인 『동국문헌비고』에 실린 1,062개 장시 가운데 5일장은 91.1%를 차지하고 있으며, 19세기 초 자료인 『임원경제지』에 실린 1,052개 장시 가운데 5일장은 8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sup>19)</sup> 성호 이익은 18세기 후반 당시 “지금 군현에는 허시(墟市)가 점차 많아져 장시는 반드시 한 달에 6회 개설되어 무릇 20-30리 사이에 5일시(日市)가 하루도 비는 날이 없다”<sup>20)</sup>라고 하였다. 이것은 각 지방의 장시가 5일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으로 정착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시의 수적인 증가 및 장시 내부의 질적인 발달은 대부분의 장시가 5일 간격으로 개시하게 되었고, 점차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조대 장령(掌令) 한용탁(韓用鐸)은 근래 장시가 많이 개설되어 대개 10리에 한 곳이 개설될 정도여서 사람들이 말리를 따르고 농사에 게으른 반면 놀고먹는 자들이 날로 많아진다고 하였다.<sup>21)</sup> 장시 수의 증가는 자연적으로 시장권의 형성으로 발전해갔다. 시장권이 형성 되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4-5개의 장시가 상호 간에 개시일을 달리하며 열리면서 일정 지역 내에서 상품거래가 항상 이루어지게 된다.<sup>22)</sup>

장시 개설의 정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기가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5일마다 돌아오는 개시일은 일상생활에 여러 형태로 영향을 주었다. 영조대 전군수(前郡守) 위혁만(魏赫萬)은 전채(錢債) 취식(取殖)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5일마다 돌아오는 개시일을 이식(利殖)하는 규례로 삼고 있다고 하였다. 즉, 1냥을 꾸어줄 경우

18) 『승정원일기』 410책, 숙종 29년 3월 15일.

19) 김대길, 앞의 책, 141-146쪽 참조.

20) 『星湖僿說類選』 권4 下, 人事篇 6 治道門 3 場市條.

21) 『승정원일기』 1732책, 정조 18년 7월 22일.

22) 한상권, 앞의 논문, 225쪽; 이현창, 「구한말 충청북도의 시장구조」, 『근대조선의 경제구조』(비봉출판사, 1989), 181쪽 참조.

한 장도막이 지나면 5푼의 이식을 받으므로 한 달에 6회 개시하는 장으로 말하면 이자로 3전을 취하고, 10개월이면 3냥, 1년이면 거의 4냥에 이르는 것이다.<sup>23)</sup>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한 장날로부터 다음 장날 사이의 5일을 이식하는 일반적인 단위로 삼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관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시일에 맞추어 계획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출하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장시의 활성화는 지역주민들의 거래관행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영조대의 기록에는 장날에 맞춰 포목을 직조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장직포(場織布)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고 하였다.<sup>24)</sup> 한 달에 6회 개시되는 5일 간격의 장날이 채전의 취식이나 상품 출하 시기의 단위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있는 것이다.

조선 후기에 들어 전반적으로 일반인들도 상업 활동과 여행 또는 과거를 위해 거주지역을 벗어나는 기회가 많아졌다. 일반 민인들은 생활용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 주로 인접한 시장을 이용하였지만 때로는 가고 오는 길이 하루가 빠듯하게 소요되는 장시를 다녀오기도 하였다. 상인과 일반인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도로는 대개 장길이었다. 그것이 간선도로 또는 지름길이거나 장시와 장시를 이어주는 도로는 장길로 통했다. 장시와 장시를 연결하는 도로 곳곳에 들어선 주막과 점막은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 활동범위를 확대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개시일에 시장을 이용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이동거리, 운송수단, 교역물품, 기상조건, 도로상태, 고개의 유무(有無), 하천이나 도하(渡河)의 유무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읍치(邑治) 부근에 거주하면서 읍내장을 이용하는 경우처럼 거리상 매우 가까운 곳이 아니라면 시장을 출입하는 경우 대개 하루를 소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이 장날에 사용하는 시간은 대개 반나절 또는 하루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세기 중엽 경상도 경주<sup>25)</sup>의 정의화(鄭義和)

23) 『승정원일기』 614책, 영조 2년 4월 12일.

24) 『승정원일기』 1102책, 영조 30년 1월 10일.

25) 『임원경제지』 倪圭志 권4, 貨殖 八城場市條에는 경주지역에 19개 장시가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의 일기 자료<sup>26)</sup>에 나타난 장시출입 내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① 정유년(1837) 6월 11일 아화시(阿火市)에 갔다가 정오 즈음 돌아왔다.  
12월 12일 성시(城市)에 가서 소금을 구입하여 저물녘에 귀가하였다.
- ② 무술년(1838) 3월 11일 아화시에 갔다가 저물녘에 돌아왔다.  
9월 27일 성시에 갔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 ③ 경자년(1840) 1월 27일 가야(家院)가 성시에 갔다가 저물어서 돌아왔다.  
7월 11일 아화시에 가서 마포를 구입하고 저녁에 돌아왔다.
- ④ 갑진년(1844) 2월 16일 아화시에 갔다가 저녁에 돌아왔다.
- ⑤ 기사년(1869) 3월 16일 아화시를 갔다가 정오 즈음 돌아왔다.
- ⑥ 경오년(1870) 1월 22일 가아가 읍시(邑市)에 갔는데 소를 팔지 못하고 늦은 저녁 즈음에 다시 끌고 왔다.<sup>27)</sup>

장시에 갔다가 저녁이나 정오 즈음에 귀가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일기를 기록한 정의화는 경주부 서면(西面)에 거주하였으며, 이곳에는 아화장(阿火場)이 개설되고 있었다. 아화장은 읍치에서 50리 떨어져 있었고, 16일에 개시되는 시장이었다. 장시의 위치와 거주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①의 6월 11일과 ⑤의 3월 16일 아화장을 이용하였을 경우 정오 즈음에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왕복 반나절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①과 ②의 성시(城市)나 ⑥의 읍시(邑市)로 표현한 경주(慶州) 부내장(府內場)을 이용하였을 경우는 저녁 즈음에 귀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5일장을 순회했던 행상들은 일반인들과는 달리 이동능력이 뛰어났다. 상인들의 도보이동 속도는 시속 약 10-15리 정도였다고 한다. 군현별로 읍치를 중심으로 장시와 장시 간의 거리는 대개 30-50리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행상들이 장을 이동하는 데 대체적으로 2-4시간가량 소용되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sup>28)</sup> 장시

26) 가로 22cm×세로 17.5cm 크기로 10-15년 기간의 일기 3책으로 묶여 있으며, 1835년에서 1876년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자료는 국사편찬위원회 경북 경산시 사료조사위원 조원경이 소장하고 있다.

27) 『정의화일기』 정유년 4월 22일, 6월 11일, 12월 12일; 무술년 3월 11일, 9월 27일; 경자년 1월 27일, 7월 11일; 갑진년 2월 16일; 기사년 3월 16일; 경오년 1월 22일.



수의 증가로 18세기 후반 각 지역별로 긴밀하게 시장권이 형성되었다. 『동국문헌비고』(1770)에 수록된 장시들의 시장권 반경은 경기도 6.7km, 충청도 6.4km, 전라도 5.9km, 경상도 6.6km, 황해도 9.0km, 평안도 11.2km, 강원도 12.4km, 함경도 27.2km로 전국 평균은 9.0km 정도인 것으로 나타난다.<sup>29)</sup>

한편 주목되는 것은 장시를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시장을 갔다.’고 하는 ‘거시(去市)’ 또는 ‘왕시(往市)’와 ‘장보러 갔다’는 ‘관시(觀市)’ 또는 ‘견시(見市)’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 ① 병진년(1856) 11월 15일 往觀乾川市買祭物 農魚二尾四錢五分 明太五尾七分 末藿一分 眞藿二分……
- ② 무오년(1858) 8월 21일 阿火市 觀市則木花價一兩十二斤云 而前日市十四五斤也 庶減四斤 故不買而還
- ③ 기사년(1869) 8월 10일 家兒往觀市 鹽一器碗文二錢……<sup>30)</sup>

모두 시장을 이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물품매매 같은 목적이 있을 때도 있고, 교역과는 상관없이 장을 구경하거나 물가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있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가격은 파는 자나 사는 자 모두에게 민감한 것이었다. 물가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장을 보러’ 가는 일도 많았다. 17세기 중엽 김령(金鈴)은 안동지역 장시에서 거래된 포목과 곡물, 어물의 가격을 비교하여 기록하고 있는<sup>31)</sup> 경우가 많아 시장동향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18세기 상주지역에 거주하였던 권상일의 일기에도 물가의 추이, 주변 장시의 개시 현황, 곡물과 어물 등 중요한 물화의 시장 출하시점과 거래동향 등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여러 곳에 기록하고 있다.<sup>32)</sup>

전국적으로 한 달에 6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장시 발달은 상인과 농민, 수공업자 등 시장을 이용하는 자들의 생활주기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며, 거주지역을 벗어나 상품교역에 참여하거나 여행하는 기회가 많아지는 등 농촌의 사회·경제 활동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28) 김종혁, 앞의 논문, 131-132쪽 참조.  
 29) 이현창, 『韓國經濟通史』(법문사, 1999), 113쪽 참조.  
 30) 『정의화일기』 병진년 11월 15일; 무오년 8월 21일; 기사년 8월 10일.  
 31) 『溪巖日錄』 기묘년(1639) 정월 12일.  
 32) 이에 대해서는 정수환, 앞의 논문, 49-52쪽 참조.

### III. 상품 생산·유통의 활성화와 여성의 상업 활동 확대

장시 설립이 제도(諸道)로 확대되는 가운데 17세기 이후 그 수가 더욱 증가하고 상품유통도 더욱 활성화되었다. 그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특히 대동법 실시, 금속화폐의 유통과 조세의 금납화, 그리고 통공발매의 실시는 장시를 통한 상인의 활동과 상품교역에 큰 영향을 주었다. 대동법 실시는 왕실과 정부의 소요 물자를 조달하던 공인들이 장시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하였고, 상업과 수공업 분야의 발달을 촉진시켰다. 농민들도 정해진 과세 규정 때문에 장시를 통한 유통경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었다.<sup>33)</sup> 한편 숙종대 금속화폐를 본격적으로 발행, 유통시키고 상품매매와 국가의 수입·지출에 동전을 사용케 함으로써 상품유통의 확대를 자극하였다.<sup>34)</sup> 그리고 정조대의 통공발매의 실시는 소상공인, 소상공 생산자층의 성장과 이들의 경제적 안정을 가져오는 계기로 작용하여 상인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었다.<sup>35)</sup>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다양한 농업, 수공업 생산물이 상품으로 변모하였다. 각종 지리지와 읍지에 수록된 토산물과 공물로 납부되던 물품들이 상품화되었다. 『임원경제지』에는 19세기 전반 장시에서 거래되고 있던 주요 물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미(米)·두(豆)·모맥(牟麥)·면화(棉花)·면포(綿布)·마포(麻布)·저포(苧布)·명주(明紬)·어염(魚鹽)·우독(牛犢)·돈(豚)·계(鷄)·연초(煙草)·철물(鐵物)·부정(釜鼎)·유기(鋤器)·지지(紙地)·자기(磁器)·토기(土器)·목물(木物) 등이다.<sup>36)</sup> 대개 농업생산물과 해산물·수공업품·가축류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물품들이 장시에서 거래되었다.

전국적으로 장시가 증가하고 시장권이 형성되면서 여성들도 상품

33) 한영국, 「대동법의 실시」, 『한국사』 13(1978); 최완기, 「대동법 실시의 영향」, 『국사관 논총』 12(1990), 김동철, 『조선 후기 공인연구』(한국연구원, 1993) 참조.

34) 원유한, 『조선 후기 화폐사연구』(한국연구원, 1975); 방기중, 앞의 논문 참조.

35) 김영호, 「조선 후기에 있어서의 도시상업의 새로운 전개」, 『한국사연구』 2(1968); 河原林靜美, 「18-19세기에 있어서 庶人과 私商에 대하여」, 『봉건사회 해체기의 사회경제 구조』(청아출판사, 1982) 참조.

36) 『임원경제지』 倪圭志 권4, 貨殖 八域場市條 참조.

생산과 판매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여성의 경우 평소에 바깥출입이 남성과 같이 자유롭지 않았다. 그러나 대개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만큼은 자연스럽게 장보는 일을 통하여 바깥세상과 접촉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속담에 ‘여자는 제 고을 장날을 몰라야 팔자가 좋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세상일을 모르고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sup>37)</sup> 이와 같은 속담은 장날을 통한 여성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자들이 시장 출입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가사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은 여성들이 한몫을 하게 된다.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물품의 운반에는 주로 남자들이 지게나 우마(牛馬)를 이용하였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여성들이 직접 이거나 들고 장을 보러 갔다. 남성과 여성이 매매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상품교역 때 거래액의 많고 적음, 상품의 부피와 무게 등에 따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상업 활동은 그리 활발하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남성 중심 사회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시대에 여성이 드러내놓고 상업 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조선 후기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는 변화과정에서 여성 상인으로 이름을 남긴 김만덕(金萬德)과 같이 예외적인 경우도 없지 않다.<sup>38)</sup> 조희룡(趙熙龍)의 『호산외사(壺山外史)』에 등장하는 김만덕의 상업 활동은 18세기 후반 상업계를 주도하고 있던 도고상업(都庫商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여성이 상업 활동에 나서고 있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은 많지 않으나 장사에서 소규모로 술이나 떡, 생선 등을 팔고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은 여러 곳에서 찾을 수 있다.<sup>39)</sup>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상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경우이다.

좌참찬 韓樂國이 “말하기를 옛날에는 군포를 장사에서 사들였기 때문에 향촌의 寒女들이 5일 안에 1필을 직조하고 한 달에 6필을 직조하여 곧바로 장시에 내다

37) 정승모, 앞의 책, 199-202쪽 참조.

38) 金龍德, 「첫 女流大商 金萬德」, 『韓國史隨錄』(을유문화사, 1984), 245-248쪽 참조.

39) 『승정원일기』 430책, 숙종 32년 5월 27일; 472책, 숙종 38년 9월 20일; 736책, 영조 7년 12월 2일; 1810책, 정조 23년 6월 26일.

팔았기 때문에 이것을 場織布라고 하였다. 이런 까닭에 고을마다 직포하는 여성이 많아 무명이 희귀할 걱정이 없었다. 근래 京各司에서 모두 동전으로 대신 거두기 때문에 향촌 여염 사이에 직포하는 자가 거의 없어져 장시 사이에 무명이 매우 귀해졌는데……”<sup>40)</sup>

향촌의 여성들이 5일만에 군포 1필, 한 달에 6필을 짜서 곧바로 장시에 내다 팔았기 때문에 이것을 장직포(場織布)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골마다 직포(織布)하는 여자가 많아 무명이 희귀할 우려는 없었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 관청에서 군포 대신 동전으로 수납하기 때문에 장시에서 무명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고 하였다.

직물류는 장시에서 거래되는 물품 가운데 곡물 다음으로 시장성이 높은 상품이었다.<sup>41)</sup> 면포·마포·명주 등 직물은 대다수 민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주된 생필품이었다. 섬유작물 재배는 농업에서 중요한 생산부문이었고, 직물업은 농촌의 부업적인 수공업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직물류의 재배와 상품생산은 지역별로 다양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양서(兩西)지방은 명주, 관북과 관동지방은 마포, 호남과 영남지방은 면포, 호서지방은 저포 생산지로 유명하였다.<sup>42)</sup> 면포의 상품경제성을 인식한 많은 농가에서 직포로 대동(大同)이나 군보세(軍保稅)를 납부하였고, 상품생산을 확대하여 생업을 삼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sup>43)</sup>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이 상품생산과 시장교역에 참여할 수 기회가 많아지게 되었다. 안성지방에 전해지는 다음과 같은 속요(俗謠)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京畿 安城 큰아기 鑰器장사로 나간다.  
한넙 팔고 두넙 팔어 파는 것이 자미라  
경기 안성 큰 아기 순가락장사로 나간다.  
銀동걸이 반수저에 색기숫같이 격이라.

40) 『승정원일기』 1102책, 영조 30년 1월 10일.

41) 김대길, 앞의 책, 101-103쪽 참조.

42) 『近民要覽』 勸農桑. “我國兩西之紬 北關東關之麻布 湖嶺之綿布 西湖之苧布 皆足爲民產.”

43) 이에 대해서는 변광석, 「18-19세기 중엽 면포의 유통구조」, 『한국근대사연구의 성과』 (형설출판사, 1989), 107-108쪽 참조.

安城鑰器半福字蓮葉周鉢은 시집가는 새아씨의 선물감이라.  
안성가신 반저름(半油鞋)은 시집가는 새아씨 발에 마침이다.  
安城油紙는 시집가는 새아씨의 빗집(梳入)감에 마침이라.<sup>44)</sup>

‘안성장터가’는 안성의 여성들이 유기와 은제 손가락·주발·꽃신·한지 등 지역의 특산물을 가지고 시장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노래로 만들어질 정도였음을 보여준다. 안성장은 전국에서도 이름난 장시였다. 이에 서울의 시사(市肆)보다 크대거나<sup>45)</sup> 서소문외시장(西小門外市場)보다 크다고<sup>46)</sup> 표현할 정도였다. 19세기 후반에도 안성장시는 이름난 대도회로 각전(各廛)에서 구문전(口文錢)으로 징수하는 것이 8,258냥 8전이나 될 정도로 번성하고 있었다.<sup>47)</sup> 다른 지역의 장시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거래규모와 이용자들이 매우 많은 상황에서 여성들이 상업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 IV. 장길의 발달과 주막 설립·이용의 증가

장시의 증가와 시장권 형성에 따른 상인들의 활동범위 확대, 상품수송의 대량화 등은 지역 간 경제적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장꾼들의 지역 간 왕래와 순회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지름길이나 샛길이 개척되었고, 곳곳에 점막이나 주막이 들어섰다. 시장 발달과 함께 일반 민중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주막은 주점(酒店), 술막, 솥막이나 여점, 야점, 점막 등으로 불렸다. 주막은 대개 장터 부근이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 지점이나 길목, 나루터 등에 있었다.<sup>48)</sup> 이와 함께 교통의 중심지 또는 상업 중심지에는 상품매매의 중개 역할과 숙박업, 물품의 보관 및 운송, 대금업(貸金業)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객주(客主)나 여각(旅閣)과 같은 시설이 증가해갔다.<sup>49)</sup>

44) 金台榮, 『安城記略』(安城郡, 1925), 38-39쪽.

45) 『영조실록』 영조 23년 12월 갑술.

46) 『승정원일기』 1024책, 영조 23년 12월 18일.

47) 『敬窩集略』 畿繡集略 關廿 二十二日 傳令 在安城出道所.

48) 최영준, 『嶺南大路』(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283-297쪽 참조.

49) 이에 대해서는 박원선, 『客主』(연세대출판부, 1968); 이병진, 「조선 후기 상품유통과 여객주인」, 『경제사학』 6(1983); 홍순권, 「개항기 객주의 유통지배에 관한 연구」, 『한

주막의 기능은 무엇보다 여행객이나 상인 등의 손님에게 술이나 밥을 파는 것이고 때로는 숙박처를 제공하는 일이다. 주막은 소규모의 상거래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어들을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여행객이 아닌 지역주민들에게도 막걸리로 목을 축이거나 잠시 쉬어가는 휴식공간이자 여럿이 어울릴 수 있는 유흥장이었다. 주막의 규모는 매우 다양하였다. 비교적 작은 주막에서는 주모가 직접 술을 빚고 음식을 만들고 시중드는 일까지 담당하였다. 이와 달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여행객이나 규모가 큰 물품을 거래하며 부상대고(富商大賈)로 불리는 이들이 묵는 주막은 분위기가 달랐다.

상인들의 활동범위가 더욱 확대되는 가운데 물화유통이 활발한 지역에는 새로운 장길이 형성되었다. 지역을 연결하는 곳곳에 주막이 들어서는 곳이 증가하면서 정조대 안변과 평강 사이에는 8-9개의 점촌(店村)이 형성되고 이곳에 근거지를 둔 민호가 수백 가호에 이를 정도라고 하였다.<sup>50)</sup> 주막과 점막 운영을 생업으로 삼는 자들이 마을을 이룰 정도로 상인들의 지역 간 상품유통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조 21년 황해도 금천(金川)의 경우 읍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병진촌(餅塵村)이 형성되어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점막도 즐비하다며 이곳으로 참(站)을 옮길 것을 건의하고 있다.<sup>51)</sup> 주목되는 것은 송도에서 금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병진(餅塵)이 들어서고 점막도 늘어난 점이다. 이곳을 경유하는 상인과 여행객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군사적으로 요충지인 조령에서도 영남과 호남을 이어주는 새로운 지름길이 개설되면서 주막 설립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지름길이 생기면서 상인들과 여행객들이 대부분 이곳을 이용하게 되자 조령의 관방(關防)이 허술해진다는 지적이 있게 되었다. 이에 첩로(捷路)에 있는 주점들을 모두 철거하고 행인들의 왕래를 금지시키기도 하였다.<sup>52)</sup> 그러나 상인들로서는 대량의 상품을 신속하게 운송하여 판매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통행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지름길을 이용하였다.<sup>53)</sup>

국학보』 39(1985) 등을 참조.

50) 『승정원일기』 1634책, 정조 11년 9월 29일 참조.

51) 『승정원일기』 1775책, 정조 21년 4월 16일.

52) 『승정원일기』 1643책, 정조 12년 6월 12일 참조.

주막의 기능과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리지와 지도·읍지 등에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반영되었다. 1872년에 제작된 조선 후기 지방지도에는 주막과 관련된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게 표시되어 있다. 전라도 곡성의 경우 3개의 장시가 개설되고 있었는데 주막과 주점은 16개나 있었다. 광양에는 2개의 장시가 개설된 가운데 10개의 점막(店幕)이 있었다. 구례에는 장시 2개에 주점 10곳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낙안에는 3개의 장시에 12곳의 점(店)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sup>54)</sup> 충청도의 경우 결성(結城), 노성(魯城), 당진(唐津), 대흥(大興), 덕산(德山), 면천(沔川), 비인(庇仁), 청양(靑陽) 등 여러 지역에서 장시와 점을 붉은색 원점(圓點)으로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sup>55)</sup> 주막의 위치와 이름 등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이에 대한 정보가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주막은 장시를 순회하는 상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여행객들의 식사와 숙박에 필수적인 요소였다. 17세기 후반 경북 예안에 거주하던 김순의(金純義)가 한양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숙박하는 곳을 살펴보면 대개 주막에서 머무르고 있다. 9월 12일 출발하여 10월 7일 서울에 도착하는 일정 가운데 투숙한 곳은 원천촌사(遠川村舍) → 안방준가(安邦準家) → 수산역(首山驛) → 충주읍내(忠州邑內) → 조갑주막(鳥甲酒幕) → 이천읍촌(利川邑村) → 남한산성개원사(南漢山城開元寺) → 과천주막(果川酒幕) → 대부절벽가(大阜絶壁家) → 과천주막 → 박귀성가(朴貴星家)였다. 숙박 장소로 역과 사찰, 촌사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 주막을 이용하고 있다. 또한 이동수단인 말의 먹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막을 들르기도 하였다. 그는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거의 같은 곳에서 숙박을 하고 있었다.<sup>56)</sup>

조선 후기 주막이 증가하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각 지역에서 행해지는 과거시험, 백일장 등이다. 과거시험이 있으면 인근 지역의 거자(擧子)들이 하루 이틀, 또는 수일을 이동하여 과거에 응시하게 된다. 또한 향시·공도화·회시 등을 치르는데 이틀이나 5일이

53) 『일성록』 순조 22년 11월 2일 참조.

54) 서울대학교규장각, 『조선 후기 지방지도 -전라도편-』(1996).

55) 서울대학교규장각, 『조선 후기 지방지도 -충청도편-』(1998).

56) 『果軒日記』 임인년(1632) 9월 12일-10월 21일 참조.

소요되기도 하였다.<sup>57)</sup> 따라서 이동 기간과 시험을 치르는 기간 동안 머물 숙소의 확보는 시험 못지않게 중요한 관심거리였다. 원거리를 이동할 경우 관리들과 유력한 양반들은 대개 관아나 역관, 사찰 등을 이용하지만 관직에 등용되지 못한 양반이나 평민들은 주로 주막이나 점막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9세기 전반 경북 예천에 거주하던 박득령(朴得寧)은 과거시험을 위해 이동하면서 숙박 또는 식사나 휴식을 위해 주막·주점·시점(市店) 등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sup>58)</sup>

한편 시소(試所)가 있는 지역에 머무는 동안의 숙식 문제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되었다. 숙박시설을 찾는 수요가 갑자기 많아진 상황에서 숙소를 확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먼저 지인이나 친척의 집, 역사(驛舍) 등에서 유숙할 수도 있었고 특별한 연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주막이나 점막에 숙소를 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험 치를 고을에 일찍 도착하지 않으면 좋은 숙소를 확보하지 못해 낭패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조선 후기 과거에 응시하는 유생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적절한 숙소를 얻는 것도 경쟁이 되었다. 때로는 시소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곳에 숙소를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sup>59)</sup> 각종 시험이 시행되는 지역 인근에 위치한 주막과 점막 등은 성황을 이루었다.

주막이나 점막은 암행어사나 위유사 등이 민정을 파악하고 각종 시책을 홍보하는 곳이기도 하였다. 정조대 충청도 지역에서는 각 읍면방곡(坊曲)의 사람이 많이 다니는 점막에 면포를 정대(停代)한다는 내용의 진서(眞書)와 언문(諺文)을 게시하도록 명하고 이를 점검하기도 하였다.<sup>60)</sup> 그리고 율음(律音)이나 정령 등 각종 홍보 내용을 알리고 게시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sup>61)</sup> 고종대 중앙에서도 각종 절목(節目) 내용을 경기·삼남(三南)·해서(海西)의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열읍(列邑)의 촌리(村里)와 장시에 한문과 언문으로 게시하여 한 사람이라도 알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고 있다.<sup>62)</sup>

57)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 -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2007), 288-299쪽 참조.

58) 박득령이 1834-1871년까지 기록한 『渚上日記』 참조.

59) 이에 대해서는 전경목, 앞의 논문, 300-301쪽 참조.

60) 『승정원일기』 1738책, 정조 18년 11월 16일.

61) 『일성록』 정조 18년 12월 4일; 정조 19년 정월 4일 참조.

62) 『승정원일기』 2715책, 고종 4년 6월 11일.



시장경제의 발달로 물화와 화폐의 유통이 활성화되고 행상, 여행, 과거 등 다양한 목적과 형태의 유동인구 증가로 주막과 점막 설립이 많아졌다. 특히 장날 도로변이나 시가지, 장터에 위치한 주점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 V. 생활정보 수집과 지역 간 문화교류의 장

장시 이용자들은 장터에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주민들로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기회가 장날이었다. 민인들로서는 생활정보 수집과 세상 돌아가는 정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장시를 이용하게 되었다. 농촌의 주민들이 중요한 생활정보를 견문하는 시기가 장날이었고, 장소는 장터나 주막 등이었다. 단편적인 내용이지만 장터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소문을 듣거나 장을 보러 가서 지인을 통해 편지를 전해 받거나 인근 시장을 이용하면서 친척의 안부를 전해 듣고 있는 내용들이 확인된다.<sup>63)</sup>

조선 후기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상품유통의 발달에 따라 장시 개설 유무, 위치, 개시일, 상인 및 이용자의 규모, 출하물품의 특징 등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다양해졌다. 상인이나 농민, 수공업자 등은 계절별 상품의 출하 시기, 가격추이 등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상품가격은 파는 자나 사는 자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

장시는 상품가격이 정해지는 곳이었다. 상품은 교환을 목적으로 생산되며 사용가치뿐만 아니라 교환가치도 가지고 있다. 교환가치는 무엇보다도 상호 교환되는 양적 관계 또는 비율로 표현된다. 여러 가지 상품이 일정한 비율로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것은 그것들이 모두 동등한 크기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그 가치에 의해 서로 교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상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관계가 변화하면서 오르내리기 마련이다. 조선시대 장시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물물교환되기도 하고 동전을 매개로 매매되었지만 물품의 교환가치는 대개 미(米)와

63) 『승정원일기』 385책, 숙종 25년 7월 15일, 1844책, 순조 원년 12월 26일; 『淸臺日記』 갑술년(1754) 12월 25일; 『정의화일기』 경신년(1860) 정월 20일, 경신년(1860) 2월 15일.

포(布)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경우가 많았다.

17세기 계암(溪巖) 김령(金玲)이 안동지역에 거주하면서 기록한 일기 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다. 포 1필로 어물을 구입하려고 하였지만 가격이 매우 높아 매매하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내용과<sup>64)</sup>, 흉년으로 인한 물가변동과 장사에서 형성된 포·조(租)·대두(大豆)·청어(靑魚)·대구(大口)의 가격을 비교하고 있으며<sup>65)</sup>, 물가가 크게 올라 포 1필로 대구 네 마리를 교환할 수 있었다는 내용<sup>66)</sup> 등을 기록하고 있다. 장시에 출하되는 주요 물품에 대한 가격변동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중엽 상주지역에 거주하던 권상일의 일기에서도 장사에서 곡물의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sup>67)</sup> 장시의 물가는 직접 상품의 거래를 통해서 확인하기도 하지만 시장을 이용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 듣고 정보를 얻기도 하였다.

장사에서 거래되는 상품 가운데 곡물은 계절에 따라 큰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주(地主)나 재부자(財富者)들에게 봄부터 보리가 수확되기 전까지 기간은 높은 가격으로 곡물을 출하할 수 있는 기회였다.<sup>68)</sup> 영조대 동지(同知) 유복명(柳復明)은 가을과 겨울에 장시에 출하되는 곡식은 빈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봄과 여름에 출하되는 곡물은 모두 부민(富民)들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 때문에 빈민이 사채를 얻거나 신역으로 어려움을 겪는 반면 부민들은 식리(息利)하거나 토지를 매입하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부민들이 봄과 여름에 장시에 곡물을 출하하여 식리하거나 곡물가가 크게 오른 후에 곡식을 팔아 취전(聚錢)을 일삼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욱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sup>69)</sup> 정조대 공조참판 유광국은 재산이 많은 자나 동전이 많은 자가 겨울과 봄까지 곡물을 저장해두었다가 가격이 크게 오르기를 기다려 판매하므로 이익을 얻는다고 하였다.<sup>70)</sup> 이와 같이 계절적 곡물가 변동에 따라 시장의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

64) 『溪巖日錄』 기사년(1629) 12월 11일.

65) 『溪巖日錄』 무인년(1638) 12월 12일; 기묘년(1639) 정월 12일.

66) 『溪巖日錄』 경진년(1640) 12월 27일.

67) 『淸臺日記』 병인년(1746) 3월 19일.

68) 『溪巖日錄』 기묘년(1639) 4월 19일.

69) 『승정원일기』 971책, 영조 20년 4월 14일.

70) 『승정원일기』 1716책, 정조 17년 4월 29일.

는 모습은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다.

한편 지역적 생산물의 차이를 이용하여 원거리까지 상품을 운송, 판매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예를 들어 함경도 원산의 명태가 서울뿐만 아니라 강경장(江景場)까지 운반되어 거래되거나<sup>71)</sup>, 서울 근교의 상인들이 원산까지 직접 가서 어물을 구입하여 시전상인들과 경쟁하고 있는<sup>72)</sup> 모습은 상품유통 대량화와 권역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sup>73)</sup>

물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인접한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19세기 중엽 정의화(鄭義和)의 일기에는 경주와 영천 지역의 장시를 이용하며 농우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지역별 물가 차이가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송아지나 농우를 사거나 팔기 위해 경주에서 영천장을 이용하고 있는데<sup>74)</sup>, 농우 매매에는 고액이 오가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원거리의 장시까지 이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소 값이 헐하거나 지나치게 높아 사거나 팔지 못해 헛걸음을 하거나 구입한 소를 환퇴(還退)하려고 다시 시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 소를 팔거나 사기 위해 영천장을 이용하고 있음은 경주보다 영천의 우시장이 규모가 크거나 비교적 적당한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조선 후기 사회·경제 변화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 장시에 대한 정보는 지리지, 지도, 읍지 등을 편찬하는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장시 발달과 함께 18세기 이후 편찬되는 각종 지리지·지도·읍지 등에 각 지역의 장시를 비롯하여 상업교역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즉, 도로·장시·점막·진선(津船)·어염(魚鹽) 등의 항목이 신설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항목들은 상업적 현상이나 유통수단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이 시기의 사회적 변화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sup>75)</sup> 앞선 시기에 군사적·행정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비교하

71) 이에 대해서는 고동환, 앞의 논문(1985); 고동환, 「浦口商業의 발달」, 『한국사시민강좌』 9 (1991) 참조.

72) 『各塵記事』 人卷 가경 11년(1806) 9월 일 참조.

73) 朴齊家, 『北學議』 內篇 車條.

74) 『정의화일기』 경오년 2월 2일, 경오년 7월 26일; 임신년 2월 11일; 병오년 2월 17일 참조.

75) 양보경, 「조선 후기 상업발달과 지역구조의 변화」, 『지리학논총』 4(1987), 143쪽 참조.

면 많은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17세기 말 이래 상품화폐경제가 발전하면서 상업지리, 교통지리에 대한 정보가 절실하게 요구되었다. 『택리지』·『동국지도』·『대동여지도』와 같은 민간의 저술, 제작은 바로 이러한 현실적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었다.<sup>76)</sup> 18세기 이후 편찬되는 각 지역의 읍지를 비롯하여 지리지와 지도에는 장시 개설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동국문헌비고』·『임원경제지』·『여도비지(輿圖備志)』·『대동여지통고(大東輿地通考)』·『용구수전(龍區壽典)』·『증보문헌비고』 등에는 장시의 개설 유무, 장시의 위치, 장시의 개시일, 장세(場稅) 내용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리고 1872년 제작된 지방지도에도 장시 개설 유무를 자세하게 표시하고 있다. 실학자들도 대부분 장시 개설이 여러 가지 폐단이 있지만 민인들의 교역과 경제생활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sup>77)</sup> 『대동여지도』를 편찬한 고산자 김정호는 장시를 설립하여 교역케 하는 것이 국가를 다스리고 민생을 구제하는 일대 명맥이라고 보았다.<sup>78)</sup> 이 때문에 그는 『동여도지』와 『여도비지』에 전국의 장시 개설 상황을 자세히 수록하고 있다.

조선시대에 농민들이 마을 밖으로 외출하는 경우는 장을 보러 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장시는 문화교류가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곳으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장시는 인적·물적·문화적 풀(pool)을 형성함으로써 총체적인 의미로서의 문화교류가 실행되었고, 이에 장시를 중심으로 기초적인 생활권이 형성되었다.<sup>79)</sup> 장날은 각종 생활정보를 확보하고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장시는 상인과 수공업자, 농민 등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고, 장날은 시간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날이었다.

물화유통과 농촌경제의 추이를 파악하는가 하면 민심의 동태를 견문할 수 있는 곳이 장시였다. 영조 4년 부교리 박문수는 자신이 잠행(潛行)할 때 평상복을 입고 각 고을의 장시를 돌며 민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였다.<sup>80)</sup> 순조 8년 부응교 이면승(李勉昇)은 암행어사의 직무는 여항(閭巷)과

76) 이우성, 「이조 후기의 지리지·지도」, 『한국의 歷史像』(창작과 비평사, 1982), 125쪽.

77) 김대길, 「조선 후기 실학자의 場市觀」, 『관동사학』 5·6합집(1994).

78) 『大東地志』 門目 土産條.

79) 김종혁, 앞의 논문, 200쪽 참조.

80) 『승정원일기』 657책, 영조 4년 3월 10일.

장사에서 민심의 동향을 채집하고 들어보아야 한다고 상소하였고<sup>81)</sup>, 순조 9년 사간(司諫) 이우재(李愚在) 역시 장터와 시정의 동향을 모두 조사해야 사안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sup>82)</sup> 고종 즉위년 선전관(宣傳官) 정운구(鄭雲龜)가 올린 서계(書啓)에는 동학에 대한 내용을 탐문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장시를 이용하였다고 하였다.<sup>83)</sup>

이와 같이 장시는 암행어사나 위유사, 또는 수령 등이 개시일을 이용하여 윤음(綸音)이나 정령을 알리고, 조세를 면제하거나 감소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알리는 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그리고 모역자나 반역자의 처형<sup>84)</sup>, 죄인의 회술레 같은 것을 행하는<sup>85)</sup> 장소로도 이용하였다. 한편 민인들의 입장에서도 개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회적 불만을 표출시키는 장소로 장시를 이용하였다. 조선 후기 괘서(掛書)나 벽서(壁書)가 나붙는 곳은 대개 장시였다.<sup>86)</sup> 그리고 농민봉기의 집결 장소 또는 배후지로도 활용되었다.<sup>87)</sup> 시장이 지니고 있는 대중성과 익명성, 여론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십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장시는 물자의 교환과 매매를 비롯하여 놀이와 유흥이 있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문화가 형성되고 교류되는 가고 역할을 하였다. 특히 농촌생활에서 활기를 불러일으키는 곳이 장터였다. 상품의 교역을 비롯하여 새로운 문화와 생활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접하고, 시장권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골패(骨牌)나 투전 같은 놀이가 벌어지고, 사당패(社黨牌)·결립패(乞粒牌)·남사당패(南寺黨牌)·광대(廣大) 등의 풍물놀이 같은 문화도 접할 수 있었다.<sup>88)</sup> 상품유통경제의 발달과 농촌사회의 분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토지에서 이탈한 자들이 상업에 종사하거나 무리를 지어 사당패·결립패 등으로 불리는 민중놀이 집단을 형성하기도 하였다. 이들은 근거지를 떠나 전국 각 지역의 장시나 물화교역이 활발한 지역을 찾아다니며

81) 『승정원일기』 1954책, 순조 8년 9월 19일.

82) 『승정원일기』 1961책, 순조 9년 1월 9일.

83) 『고종실록』 2684책, 즉위년 12월 임진.

84) 『비변사등록』 85책, 영조 5년 5월 19일; 『關西平亂錄』 參, 壬申 4월 초 9일.

85) 『嘉林報草』 기미년(1739) 정월 16일.

86)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掛書』(국학자료원, 1999) 참조.

87) 진주와 개령의 농민봉기 때도 장시가 집결지로 이용되고 있다. 『壬戌錄(嶺湖民變日記)』

嶺南 晉州按察使查啓辭; 嶺南 巡營狀啓 四月 참조.

88) 심우성, 『南寺黨牌研究』(동화출판공사, 1974), 31-39쪽 참조.

지역의 품물이나 재주를 흡수하면서 연희(演戲)를 하고 그에 따른 돈이나 물품을 받기도 하였다.<sup>89)</sup> 장시는 조선 후기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상과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이었다.

## VI. 맺음말

조선 전기에 보름 또는 10일장으로 개시되던 장시가 이후 5일장의 정기시장으로 발달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시장이 정기적으로 열리면서 물가상승이나 도적의 발생 등 여러 가지 폐단이 발생하자 장시 개설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는 개설되는 곳이 증가하고 상인들의 활동도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장시는 한 달에 6회 개시하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각 지역마다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장시의 정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기가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작용하였다. 시장거래에서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채전(債錢)의 이식(利殖)이나 상품의 생산 기간 및 출하 시기의 단위가 되고 있었다. 일반인이 개시일에 장시를 이용할 경우 대개 반나절 또는 하루를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장시를 이용하는 목적이 상품거래를 비롯하여 각종 물가동향과 시장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장시의 활성화는 상품의 생산과 유통을 확대시켰다. 특히 대동법의 실시와 금속화폐의 유통 및 조세의 금납화, 통공발매의 실시 등은 농민·수공업자 등이 장시를 통한 유통경제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다양한 농업생산물·수공업품·해산물·가축류 등은 장시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상품 생산과 판매에 적극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여성의 경우 평소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 밖으로 외출하며 생활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89) 『일성록』 정조 20년 정월 15일; 『정의화일기』 병진년(1856) 12월 12일.

상인들의 활동범위 확대, 상품운송의 대량화, 지역별 시장권 형성 등은 지역 간 경제적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장시를 순회하는 장꾼이나 여행객들에 의해 새로운 지름길이나 샛길이 개척되었다. 그리고 장터 부근이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 지점, 나루터 등에 주막이나 점막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막은 장시를 순회하는 상인은 물론이고 일반 여행객들의 식사와 숙박에 필수적인 것이었다. 주막의 기능과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리지·읍지·지도 등에 이에 대한 정보가 크게 반영되었다. 주막의 증가와 이용이 확대되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과거와 백일장 등이었다. 과거시험을 위해 이동하는 기간이나 시소(試所)가 있는 지역에서 머물 때 식사와 숙박을 해결하는 장소로는 주로 주막이 이용되었다. 주막이나 점막은 상품거래가 이루어 지기도 하였으며, 정부시책이나 각종 생활정보가 게시되는 홍보의 장소로 활용되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수월한 기회가 장날이었다. 장시 이용자들은 장터에서 친척의 안부나 시장거래의 동향, 물가의 추이, 출하물품의 특징, 계절별 상품의 출하 시기 등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장시는 상품가격이 결정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시장의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했다. 장시에서 거래되는 상품은 물물교환이나 동전을 매개로 매매되었으며, 물화(物貨)의 교환가치는 대개 미(米)와 포(布)를 기준으로 비교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인을 비롯하여 농민, 수공업자 등은 생산물의 계절적·지역적 가격 차이를 고려하여 상품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고 수익을 높였다.

18세기 이후 각 지역의 사회·경제 변화상이 함축되어 있는 장시에 대한 정보는 지리지·지도·읍지 등의 편찬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에 편찬된 각종 자료에는 장시를 비롯하여 상업교역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이것은 상품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지리, 교통지리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수요층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정해진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역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다양한 생활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배층이나 민인들은 장시가

지니고 있는 대중성과 익명성, 여론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적극 활용하였다. 장시는 지역과 지역 간 상품, 사람, 문화가 집산(集散)되는 곳이었다. 또한 장시는 조선시대 사회·문화 변화상과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으로 상품의 교환과 매매를 비롯하여 놀이와 유흥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문화가 형성되고 교류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였다.



## 참 고 문 헌

『溪巖日錄』.  
『備邊司謄錄』.  
『承政院日記』.  
『日省錄』.  
『林園經濟志』.  
『鄭義和日記』.  
『朝鮮王朝實錄』.  
『朝鮮後期 地方地圖』.

- 김대길, 『朝鮮後期 場市研究』. 국학자료원, 1997.  
\_\_\_\_\_, 『조선 후기 牛禁 酒禁 松禁 연구』. 경인문화사, 2006.  
고동환, 「18·19세기 外方浦口의 상품유통 발달」. 『한국사론』 13, 1985.  
\_\_\_\_\_, 『조선 후기 서울상업발달사연구』. 지식산업사, 1998.  
김중혁, 「조선 후기 한강유역의 교통로와 장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방기중, 「17·18세기 전반 금납조세의 성립과 전개」. 『동방학지』 45, 1984.  
변광석, 「18-19세기 중엽 면포의 유통구조」. 『한국근대사연구의 성과』, 형설출판사, 1989.  
양보경, 「조선 후기 상업발달과 지역구조의 변화」. 『지리학논총』 4, 1987.  
오성, 『조선 후기 상인연구』. 일조각, 1989.  
이상배, 『조선 후기 정치와 掛書』, 국학자료원, 1999.  
이창식, 『한국의 보부상』. 밀알, 2001.  
전경목, 「조선 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 - 권상일의 『淸臺日記』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 2007.  
정수환, 「18세기 권상일의 시장접촉과 화폐경제생활」. 『사학연구』 104호, 2011.  
정승모, 『시장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최영준, 『嶺南大路』.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1990.  
최완기, 「대동법 실시의 영향」. 『국사관논총』 12, 1990.  
한상권, 「18세기 말-19세기 초의 장시발달에 대한 기초연구 -경상도지방을 중심으로」. 『한국사론』 7, 1981.

조선시대 장시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조선 전기에 보름장으로 개설되던 장시가 이후 5일장의 정기시장으로 발달하면서 농촌의 사회·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18세기에 이르면 대부분의 장시는 한 달에 6회 개최하는 5일장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각 지역마다 시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장시의 정기성은 지역주민들의 생활주기가 장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였다. 시장거래에서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이 대여금의 이자를 부과하는 단위가 되는가 하면 상품의 출하 시기를 지역의 장날에 맞추는 것을 고려하게 되었다. 그리고 장시를 이용하는 목적이 상품거래를 비롯하여 각종 물가동향과 시장거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도 많았다.

장시의 활성화는 상품생산과 유통을 확대시켰다. 다양한 농업생산물·수공업품·해산물·가축류 등은 장시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여성들이 상품생산과 판매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다. 여성의 경우 평소 바깥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5일마다 돌아오는 장날에 이루어지는 경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마을 밖으로 외출하며 생활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상인들의 활동범위 확대, 상품운송의 대량화, 지역별 시장권 형성 등은 지역 간 경제적 연계성을 더욱 긴밀하게 하였다. 장시를 순회하는 장꾼이나 여행객들에 의해 새로운 지름길이나 샛길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장터 부근이나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중간 지점, 나루터 등에 주막(酒幕) 설립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막의 기능과 필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리지(地理誌)·읍지(邑誌)·지도 등에 이에 대한 정보가 크게 반영되었다. 주막의 증가와 이용이 확대되는 요인 중 하나는 각 지역에서 시행되는 과거와 백일장(白日場) 등이었다.

교통과 통신이 불편한 상황에서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수월한 기회가 장날이었다. 장시 이용자들은 장터에서 친척의 안부나 시장거래의 동향, 물가의 추이, 출하물품의 특징, 계절별 상품의 출하 시기 등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었다.

18세기 이후 각 지역의 사회·경제 변화상이 반영되어 있는 장시에 대한 정보는 지리지·지도·읍지 등의 편찬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

다. 이 시기에 편찬된 각종 자료에는 장시를 비롯하여 상업교역과 관련된 내용이 신설되거나 보완되고 있다.

장시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열리는 연속성을 지니고 있었고, 정해진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교역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며, 다양한 생활정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곳이었다. 그리고 지배층이나 민인들은 장시가 지니고 있는 대중성과 익명성, 여론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적극 활용하였다. 장시는 조선시대 사회·경제 변화상과 농촌의 생활상을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곳으로 상품의 교환과 매매를 비롯하여 놀이와 유흥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으며, 문화가 형성되고 교류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곳이었다.

투고일 2012. 11. 5.

수정일 2012. 11. 15.

게재 확정일 2012. 11. 20.

주제어(keyword) 장시(場市, JangSi), 주막(酒幕, inn), 상품(商品, goods), 정보(情報, information), 상인(商人, merchant), 여성(女性, women), 정기성(定期性, periodicity), 문화(文化, culture)

